

담양군, 축사 악취저감

미생물배양실 건립 '박차'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비 25억 원 확보

담양군이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권 침해 및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 25억 원(국비 12.5억 원, 군비 12.5억 원)을 확보해 2020년까지 660㎡ 규모의 축사 악취저감 미생물배양실을 건립한다. 현재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간 140~150톤의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기존의 미생물 배양시설로는 담양군의 전체 축사

악취의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규로 축사 악취저감 미생물배양실을 건립해 악취 악취저감 미생물 과 농업용미생물을 연간 250~300톤 공급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 및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와 함께 악취저감 미생물 균주 개발을 시험·연구할 계획이다. 현재 미생물은 농축산업 분야에 악취저감, 난분해성 유기물 가

용화, 선충방제, 육질개선, 사료효율 증대 등의 효과가 검증되어 많은 농축산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병창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축사 악취저감 미생물 배양실 건립을 통해 악취 없는 담양군 생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행복생활권 보장과 아울러 농축산업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업박람회서 홍보

마을 주민 직접 참여 다양한 체험으로 방문객 사로잡아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리고 있는 2019 국제농업박람회장 곡성군이 됐다.

곡성군은 22일부터 27일까지 국제농업박람회장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온가족이 행복해지는 힐링 농촌체험, 여기 곡성'이라는 주제로 운영되는 홍보관에서 방문객들은 곡성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

특히 곡성의 특산물인 활용한멜론 주스, 토란 에코백을 판매하고 있어 인기가 높다. 또한 정미화관 만들기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체험이다.

무엇보다 홍보관 운영에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점이 눈길을 끈다. 고달면 가정마을 외 12개 농촌체험마을을 위원과 사무장 등 15여 명이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들은 각 체험마을만의 특징과 즐길거리를 실감나게 안내하며 방문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박람회장 찾은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재미가 있는 우리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소개하고 있다. 여행으로 체험마을을 즐기셔도 좋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도 미리 농촌을 경험해본다는 생각으로 찾아주신다면 곡성의 매력을 꼭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곡성=김광휘 기자

광양 금광(金鑛)역사, 스마트관광으로 구현한다

점동 금광 관광명소화사업 협상 마무리...AR/VR 등 흥미 유발 콘텐츠 가미



광양시가 점동마을 금광 관광명소화사업 3단계 사업 협상을 마무리하고, 광양의 금광역사를 스마트관광으로 구현하기 위한 과업을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점동마을 금광부지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살린 콘텐츠로 시민이 여가를 즐기고 관광객이 찾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사업을 단

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1단계 사업으로 마을카페, 호수둘레길, 주차장 시설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2단계 사업으로 금광 체험시설 및 호수공원 조성을 마무리했다.

시는 올해 마지막 3단계 사업으로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 스마트 앱 콘텐츠 개발, 황금 테마 시설물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국내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금채굴 역사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감동할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각색·개발하여 마케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동굴 입구에 황금 동굴문을 설치하고, 금광의 가치를 더해 줄 미디어 파사드, AR콘텐츠 등을 구축해 광양의 금광역사를 다차원 실감형 스마트관광으로 구현한다.

증가하는 젊은 관광세대를 타깃으로 스마트폰으로 사금 채취부터 세공까지 모든 과정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형 증강현실(AR) 콘텐츠를 만들어서 개인 결과, 포토존 모든 이미지 등을 주변 친구들과 SNS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AR콘텐츠 이용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보드, 사금 채굴과 관련된 교육 만화 콘텐츠, 특색 있는 포토존 등을 구축한다.

여수시,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여수시가 시민 권익 보호·구제를 위해 23일부터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은 권역별로 2개 면사무소와 7개 동주민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운영 일정은 ▲23일 국동(국동, 대교, 월호, 돌산) ▲28일 울촌면(울촌면, 묘도동) ▲11월 5일 동문동(동문동, 한려동, 중앙

동) ▲6일 여서동(여서동, 문수동) ▲12일 광림동(광림동, 총무동, 서강동) ▲19일 미평동(미평동, 둔덕동, 민덕동) ▲21일 여천동(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소라면) ▲25일 화양면(화양면, 화정면) ▲12월 3일 시전동(시전동, 쌍봉동)이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고통 민원을 상담받을 수 있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건의할 수 있다. 시민옴부즈만은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정식 민원으로 접수해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임채성 대표옴부즈만은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계획이다"면서 "많은 시민이 부담 없이 민담장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7년 8월 전라남도 최초로 시민옴부즈만을 출범했다. 시민옴부즈만은 지금까지 민원 61건을 접수해 60건은 완료했고, 나머지 1건은 추진 중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제259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마무리



보성군의회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제259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9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와 보성군수가 제출한 의안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 조례안 외 4건을 처리하였다.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에서는 인구증가 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규모 있게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고, 군민이 만족할 체감행정을 도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해 계획한 사업 추진 결과와 군정 성과를 점검하고 다가오는 2020년 군정을 더욱 완벽하게 추진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경균 의장은 제259회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이번 회기동안 2019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와 각종 의안심사에 참여하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하며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을 위한 살기 좋은 보성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보성=안구일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번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행안 안내